

##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하 정 혜

김 지 현†

홍익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중년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40세 이후에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또는 이혼한 뒤 2년 이상 경과하였고,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재혼하지 않은 40대-50대 중년여성 한부모 24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역할갈등과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갈등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부분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상담에서 갖는 의미, 제한점을 제시하였고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주요어 : 중년여성 한부모, 성역할갈등, 외상 후 성장,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 이 연구는 하정혜의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년 2월)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와 외상 후 성장의 일부'를 수정, 요약한 것입니다.

† 교신저자 :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Tel : 02-320-1856, E-mail : mongsanga@hongik.ac.kr

삶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의 연속이고 개인은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다.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하지만 때로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크고 작은 사건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겪는 외상(traumatic) 경험을 하기도 한다.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전쟁이나 테러, 재난, 성폭력이나 신체 학대 등의 강력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혼, 사별, 또래갈등 등의 관계상실, 학업 성취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외상사건으로 다루며, 외상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외상사건에 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Boals & Schuettler, 2009; Weathers & Keane, 2007).

이와 함께 외상 경험이 개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그 정도가 심할 때는 PTSD로 진단되기도 하지만, 인간이 지닌 장애나 고통처럼 개인의 성장 가능성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본 긍정심리학의 등장으로 삶의 위기와 같은 외상경험이 갖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Park & Helgeson, 2006;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외상 경험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Tedeschi와 Calhoun(1996)은 외상사건을 겪은 후에 자기지각에 대한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삶에 대한 철학적·영적 인식의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으로 정의한다. 이들에 따르면 외상 후 성장은 외상사건에 대처하고 그 경험을 자신의 삶의 과제와 통합하려고 노력한 결과 자신과 세상,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해석 틀을 재구성하고, 내적 성장의 실현 과정에서 기존에 개인이 지녔던 적응 수준과 심리적 기능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말한다(Zoellner &

Maercker, 2006). 그러므로 외상 후 성장에서의 외상은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 간주되며, 외상 후 성장은 사건 자체의 객관적 특성과 그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와해된 삶의 서사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이해함이 중요하다(이양자, 정남운, 2008; Linely & Joseph, 2004).

한부모는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전에는 결손의 의미를 가진 편부모가 사용되었으나,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부모 중 한쪽만 있지만 '하나로도 충분하고 가득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 여성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보편화된 용어가 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2001).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족은 2000년 7.9%, 2005년 8.6%, 2010년 9.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 이후 40대와 50대 남성의 사망률 증가, 50대의 이혼율 급증으로 40세 이상의 남녀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높는데 이 가운데 여성 한부모 가족이 75%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 한부모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부모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도록 제안한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관계의 실패나 해소가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기사건이지만, 2-3년이 지난 후에는 부정적 영향들이 감소되어 이전의 적응 수준과 심리적 기능 수준이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이다(Guttman, 1991; Kalmijn & Monden, 2006; Wang & Amato, 2000). 지금까지 한부모에 대한 연구들은 이혼을 일탈로 규

정하고 병리적 입장에서 접근하곤 하였다. 여성 한부모는 성역할 변화와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의 문제, 사회적 편견에 따른 부정적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곽배희, 2001; 김미숙, 원영희, 2006; Forste & Heaton, 2004), 사별한 여성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외상을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함(강희영, 2005; 양복순, 2002)을 지적하는 등 주로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한부모의 삶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김유심, 곽지영, 2010).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에 따른 후유증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혼은 불행한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별이나 이혼은 다양한 문제와 영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므로 상실과 적응과정을 동시에 수반하는 연속적인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혜선, 김은하, 2010; 이경희, 2006; 주혜주, 2012). 이런 측면에서 이혼을 하나의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규정한 위기적 관점의 연구들은 개인에 따라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관심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도 하고(공선영, 2000; 김경순, 2010; 한경혜, 1993), 독립적이며 강한 책임감을 지닌 개인임을 깨닫기도 하는 등 한부모로서의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한다(노영주, 2001; 송옥, 2013; 최은화, 이운화, 2010)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 40대-50대 중년여성 한부모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적응과정과 성장에 관련된 심리적 기제들과 그 심리적 기제들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에 주목하였다. 같은 경험이라고 해도 변화된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은 발달 시기의 특성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년여성 한부모가 중년기의 특성과 한부모라는 전환적 사건을 함께 경험하는 독특성을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Jung(1954)에 따르면 중년기는 지적인 인식과 감정적인 통찰을 포함한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화하는 자기인식의 촉진으로 삶의 경험이 의미 있게 통합되는 개성화(individuation) 또는 자기실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이부영, 2002). Jung은 이 시기에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삶의 목표와 과정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신체와 심리적인 변화, 자녀의 성장과 독립에 따른 실존적인 공허로 중년기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 자기 발달의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중년기가 실존적 공허와 정체감 위기를 관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재평가와 재고찰을 할 수 있는 전환기라고 보았다(Erikson, 1963; Jung, 1954; Levinson, 1996). 이와 관련해 여성의 내면화된 특성을 관계 속의 자기(self-in-relation)로 이해한 경험적 연구들은 여성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도를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은 그 동안 보살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돌보는 내적 시간을 가짐으로써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Gilligan, 1982), 삶의 가치를 통합해 가는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다(Helson, Stewart, & Ostrove, 1995). 인간은 삶의 전환기에서 원하지 않은 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위기는 때로 심각한 외상 경험을 안긴다. 그러나 건강한 삶은 이런 위기와 외상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적응하고 극복하며 그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찾아 성장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년여성 한부모라는 전환적인 경험들이 서로 긍정적 맥락을 형성할 수 있으며, 외상사건은 삶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생을 향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김지혜, 2008; 장재정, 1998).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성차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성역할(gender role)을 고려한다(김지현, 2008; Bem, 1974; Gillespie & Eisler, 1992). 성역할 내면화는 생의 초기에 형성되어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Helgeson, 2002), 성역할과 관련된 구인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으며 이들 두 측면은 서로 구별되는 구인이라고 알려졌다. 성역할갈등(Gender Role Conflict: GRC)은 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된 성역할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되는데(O'Neil, 1981),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은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심리적으로 역기능적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O'Neil, 2008; Pleck, 1995; Sharpe, Heppner, & Dixon, 1995). 한국 중년여성들의 성역할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성역할갈등이 양육과 가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타인을 우선 돌봄,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주장 역제의 5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하정혜, 김지현, 2012). 이 내용들은 여성이 타인의 안녕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성역할로 내면화하고,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정체성은 아내로 어머니로 이타적 삶에 헌신하며 결혼관계를 돌보는 동안 더욱 구조화되어 위기 상황에서 극복과 적응을 어렵게 하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Effthim,

Kenny, & Mahalik, 2001; Helgeson & Fritz, 1998).

한편, O'Neil(2008)은 성역할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을 생애주기에서 발달과업의 갈등에 직면했거나 성역할의 변화를 경험할 때, 성역할 규준에 위배되거나 일탈했을 때, 이러한 규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실패했을 때와 실패에 대한 자기평가 절하와 경직, 모욕감을 느낄 때,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에 기초한 실제 자기개념과 이상적 자기개념 간의 모순을 경험할 때로 제안하였다. 여성이자 한부모로서의 경험이 중년기의 정체성 재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역할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은 중년여성 한부모들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실제로 성역할과 관련하여 한부모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탐색한 선행연구는 한부모가 과중된 역할 부담으로 스트레스가 높고(한인영, 홍선희, 2011), 여성의 나이 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믿음을 내면화한 결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며(김지혜, 2008), 돌봄의 정체성이 내면화된 여성이 모성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면 생활 스트레스의 반복으로 무력감과 우울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관계 갈등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김혜선, 김은하, 2010; Matud, 2004).

이 같은 관점에서 특히 자신이 내면화한 성역할과 어긋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보다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이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Gillespie & Eisler, 1992). 역기능적 성역할을 내면화한 경우 낮은 역할 만족도와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좌절에 취약하고(Kilmartin, 2009), 이혼 또는 사별에 따라 가정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거나 배우자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고통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따른 수치심, 자녀가 경험하는 아버지의 부재 등으로 자신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서 벗어나 있다는 죄책감(Kaufman, 2000)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도 설명될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의 수행을 타인의 기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적 염려와 관련 있으며,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자기 비난 경향성 등의 부적응적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한기연, 1993; Hewitt & Flett, 1991).

그러나 성역할갈등이란 결국 어떤 부당한 당위에 대한 사회부과적 내면화의 결과이다(김지현, 2009).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관계지향적인 정체성을 내면화한 여성을 가족과 타인 돌봄의 영역에 제한시킴으로써 무력하게 만들게 되므로, 중년여성 한부모의 심리적 건강과 외상경험으로부터의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에서 보면 중년기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로서 부모자녀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삶의 조건이 전환된 경험은 중년기 정체성의 재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심리적 건강 및 적응과의 관계 탐색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성역할 내면화의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중년기와 한부모라는 두 가지 전환적 경험을 하고 있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적응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앞에서 살펴본 외상 후 성장의 개념처럼 개인의 외상이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와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탐색이 될 수 있다.

성역할갈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외상 후 성장으로 가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밝힌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O'Neil(2008)은 성역할갈등이 발생하는 맥락적 상황에서 성역할갈등이 발달과정의 해결과정, 대인관계,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변인 등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사회심리적 문제와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성역할갈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변인들 간의 상호 인과적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측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과정이나 기제를 설명하는 변인, 즉 예측변인보다 보다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상담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서영석, 2010; Frazier, Tix, & Barron, 2004). 이와 관련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의 부정적 사건 경험과 심리적 적응 간 관계를 설명해주는 요인과 동일하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Affleck & Tennen, 1996; Park, 2010; Tedeschi & Calhoun, 2004). Tedeschi와 Calhoun(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에 따르면, 외상 사건을 경험하기 전 개인 특성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 요인 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생의 초기 경험으로부터 축적되고 내면화된 성역할갈등과 긍정심리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 요인과 자기존

중감, 기본적 욕구 충족과 같은 개인 특성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성역할갈등과 다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O'Neil(1981)의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 Tedeschi와 Calhoun(2004)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은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 간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같은 특정 환경 요인과 개인 특성이 매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Wester, Christianson, Vogel, & Wei, 2007).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지닌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적인 대인관계의 자원을 의미하며 존경, 신뢰, 애정, 관심과 같은 정서적 지지, 사건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뜻하는 정보적 지지, 필요시 직접적으로 돈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인정과 칭찬과 같은 평가적 지지 등으로 설명된다(박지원, 1985; Cohen & Wills, 1985). 여성한부모의 적응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일상 스트레스, 우울, 외로움,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주관적 안녕감, 강인성, 행복감, 긍정적인 자기 인식의 변화,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같은 적응 지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순, 2010; 김지혜, 2008; 김행섭, 김진숙, 2008; 남현주, 윤희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박주연, 김경신, 2012; Rook & Ituarte, 1999; Spruijt & Duindam, 2005). 또한 Park와 Folkman(1997)은 사회적 지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높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

였다. 외상 후 성장의 모델(Tedeschi & Calhoun, 2004)에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외상경험에 대해 문제 중심의 대처를 하도록 돕고(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신선영, 정남운, 2012; Mearcker & Langner, 2001; Thornton & Perez, 2006), 삶의 전환기에 직면한 여성의 소외감과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들의 외상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stin, Lawrence, & Foy, 1993; Cobb, 1976)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외상 후 성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연구들(Erdwins, Buffardi, Casper, & O'Brien, 2001; Weiss, 2004)도 보고되었는데, 따라서 부정적 심리 변인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외에 다른 어떤 변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는 것은 중년여성 한부모들의 상담적 조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탐색이 될 것이다.

역경의 회복력과 관련된 심리변인으로 알려진 삶의 의미는 삶 속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권석만, 2008; Park & Folkman, 1997). 선행 연구에서 삶의 의미가 우울, 불안, 고독 등의 부정 정서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고(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탐색되어 왔다. 삶의 의미는 자기 결정성, 자아탄력성, 희망, 적극적 대처 전략, 성장적 반추 과정(김경희, 이희경, 2011; 김보라, 신희천, 2010; 김택호, 김재환, 2004; 송주연, 이희경, 2010; Bellizzi & Blank, 2006)처럼 긍정변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성역할갈등과 삶의 의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지만 중년여성의 성역할갈등과 삶의 의미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하정혜, 김지현, 2012), 외상사건 이후 새롭게 삶의 의미를 발견함은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적응에 도움이 되며, 외상 후 성장이 외상사건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다(Park & Ai, 2006; Taylor, 1983)는 측면에서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역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융이 제안한 중년기의 개성화 과정과 관련해보면 삶의 의미는 자기인식의 깨달음과 더불어 존재(being) 동기인 성장 동기가 될 수 있다(Maslow, 1979).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으로서의 삶의 의미(Frankl, 1963; Steger & Frazier, 2005; Yalom, 1982)는 개인의 고유성을 소홀히 하거나 억압함이 없이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되고자 하는 자기실현과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역할갈등을 탐색하고 한부모됨의 외상사건을 극복하

여 외상 후 성장으로 연결되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데 삶의 의미 변인은 시사점이 크다. 특히 사회적 지지가 삶의 의미 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Hicks & King, 2009)는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의미가 유의하게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긍정 정서에 초점을 둘 경우에 삶의 의미는 개인적인 잠재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성장-관련(growth-related)의 한 변인이 될 수 있다(Ryff & Singer, 1998).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구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역할을 시사하지만,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는 중년여성 한부모들이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에 주목하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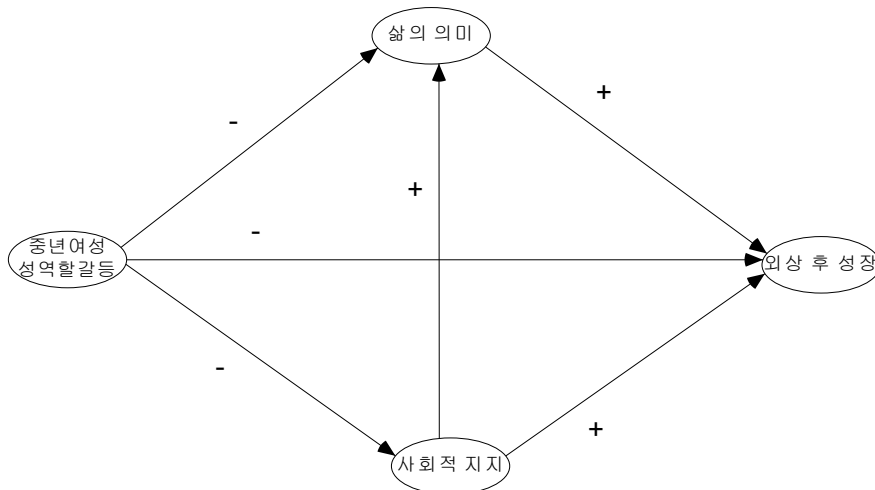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방 법

### 연구 대상

이 연구는 40세 이후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뒤 2년 이상 경과하였고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재혼하지 않은 40대-50대 중년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을 실시하면서 응답자들에게 동의를 얻고 비밀보장과 연구목적 그리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한국 한부모연합(서울, 경기, 군포, 대전, 부산, 울산, 춘천), 한국 여성민우회(인천, 고양 파주), 한국 한부모여성네트워크 무지개다리(서울 성산, 광주, 부산),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 여성의 전화(광주, 안양), 지역의 상담센터와 복지관 등 26개 기관의 284명과 연구자가 친목모임, 종교모임, 동창모임 등 눈덩이표집방법으로 접촉한 72명이었다. 배포된 설문지 총 356부 중 283부(79.5%)가 회수되었고, 이혼 또는 사별이 가장 큰 외상 사건이었다고 응답한 자료 중 무응답이 많거나, 사별 또는 이혼한 지 2년 미만이거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거나 재혼한 경우 등 전술한 연구대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4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대구광역시와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42세-49세 154명(63.9%), 50세-59세 87명(36.1%)이었고, 결혼상태는 이혼 182명(75.5%), 사별 59명(24.5%)이었다. 한부모 기간은 6년-10년 108명(44.8%), 4년-5년 56명(23.2%), 11년 이

상 43명(17.9%), 2년-3년 34명(14.1%)의 순이었고, 가족구성은 본인과 자녀의 구성이 209명(8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과 자녀, 친정 부모의 구성 31명(12.9%), 기타 1명(0.4%)이었다. 월 평균소득은 100만원미만 71명(29.4%),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21명(50.2%), 200만원이상 49명(20.4%)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05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졸업 52명(21.6%), 4년제 대학교 졸업 31명(12.9%), 대학원 이상 23명(9.5%), 기타 15명(6.2%), 중학교 졸업 13명(5.4%), 초등학교 졸업 2명(0.8%)의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 173명(71.8%)과 없는 경우 68명(28.2%)으로 조사되었다.

### 측정 도구

#### 외상 경험 질문지

외상 경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고통을 알아보고 이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송승훈 등(2009)이 사용하고 신선영, 정남운 등(2012)이 보완한 외상 경험 질문지를 재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Tedeschi와 Calhoun(1996)의 외상 정의를 바탕으로 사고 및 상해, 자연재해, 범죄피해, 성추행 및 성폭행, 사별, 이혼 등 관계 상실을 포함한 16가지 외상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응답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힘들고 충격적인 사건에 모두 응답하고, 응답한 사건들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뒤, 선택한 사건을 외상 경험이라 정의하고 이를 떠올리면서 외상 경험 당시와 최근의 고통 수준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1)에서 매우 고통스러웠다(7)의 리커트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한국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척도

성역할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하정혜와 김지현(201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척도(Korean Middle-Aged 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K-FGRCS-M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과 가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5문항, 타인을 우선 돌봄 4문항,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3문항,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3문항, 자기주장 억제 5문항 등 5개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의 리커트 6점 척도로 평가하고,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갈등이 높은 것을 뜻한다. 전체 내적 일치도는 .83, 각 요인별로 .76, .81, .72, .70, .83이었다. 이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는 .85, 양육과 가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82, 타인을 우선 돌봄 .69,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83,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77, 자기주장 억제 .82이었다.

###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4개 요인 36문항을 지지 형태와 지지 제공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형태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각각 3문항씩 구성하고 각 문항마다 부모/형제, 친구, 지역사회기관으로 지지 제공자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하며, 김연수(1995)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는 .97이었다. 이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는 .95, 정서적 지지 .87, 평가적 지지 .85, 정보적 지지 .86, 물질적 지지 .83, 부모/형제 .96, 친구 .95, 지역사회기

관 .91이었다.

### 삶의 의미 척도

삶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Steger, Frazier, Oishi, & Kaler(2004)가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원두리 등(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주관적 느낌인 의미발견과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미추구 등 2개 요인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리커트 7점 척도로 평가하며 문항 번호 중 9번은 역채점한다. 전체 내적 일치도는 .90, 요인별로는 각각 .88이었다. 이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는 .89, 의미의 발견 .88, 의미의 추구 .87이었다.

### 외상 후 성장 척도

외상 후 성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였다. K-PTGI는 원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5문항이 제외되어 자가지각의 변화 6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5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2문항 등 4개 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경험하지 못하였다(0)에서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5)의 리커트 6점 척도로 평가하고,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의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뜻한다. 전체 내적 일치도는 .94, 각 요인별로 .94, .90, .74, .70이었다. 이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는 .91, 자가지각의 변화 .88,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87,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72, 영적·종교

적 관심의 증가 .66이었다.

####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자료는 SPSS 18.0 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상 경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모형검증을 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이 정규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을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왜도가 2이상이거나 첨도가 7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준을 고려하였다. 모수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을, 모형검증은 측정모형을 먼저 확인한 후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이 두 모형을 비교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 크기에 대한 민감성, 해석 가능성, 모형의 간명성 등을 고려하여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혹은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고,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는 각 잠재변인들 간 경로계수와 그에 따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하므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이 연구의 원자료( $N = 241$ )에서 무선 표집을 반복하여 1,000개의 표집을 추출하고 이 표집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여 각 경로계수에 대한 1,000개의 추정치를 구해, 이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구간 95%에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일 때 부트스트랩을 사용할 때 전체 매개효과와 유의도만 제시하고 각각의 간접효과는 제시되지 않으므로, 개별 매개에 대해 적합도나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팬텀(phantom) 변인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하였다.

## 결 과

### 측정변인의 상관관계와 정규성 검증

모형검증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와 이들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은 외상 후 성장( $r = -.45, p < .01$ ), 사회적 지지( $r = -.31, p < .01$ ), 삶의 의미( $r = -.45, p < .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의미와 정적 상관( $r = .22, p < .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외상 후 성장은 사회적 지지( $r = .37, p < .01$ ), 삶의 의미( $r = .55, p < .01$ )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 연구의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76에서 -.20 사이, 첨도는 -.43에서 1.12 사이의 분포를 보여 절대 값이 각각 2와 7 미만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이 확인되어 구조모형 검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었다.

###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 관계를 알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2	3	4
1.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2. 사회적 지지	-.31**			
3. 삶의 의미	-.45**	.22**		
4. 외상 후 성장	-.45**	.37**	.55**	
평균	3.56	4.21	3.39	4.49
표준편차	.71	.86	.73	.88
왜도	-.76	-.41	-.20	-.62
첨도	-.34	-.43	.50	.39

주.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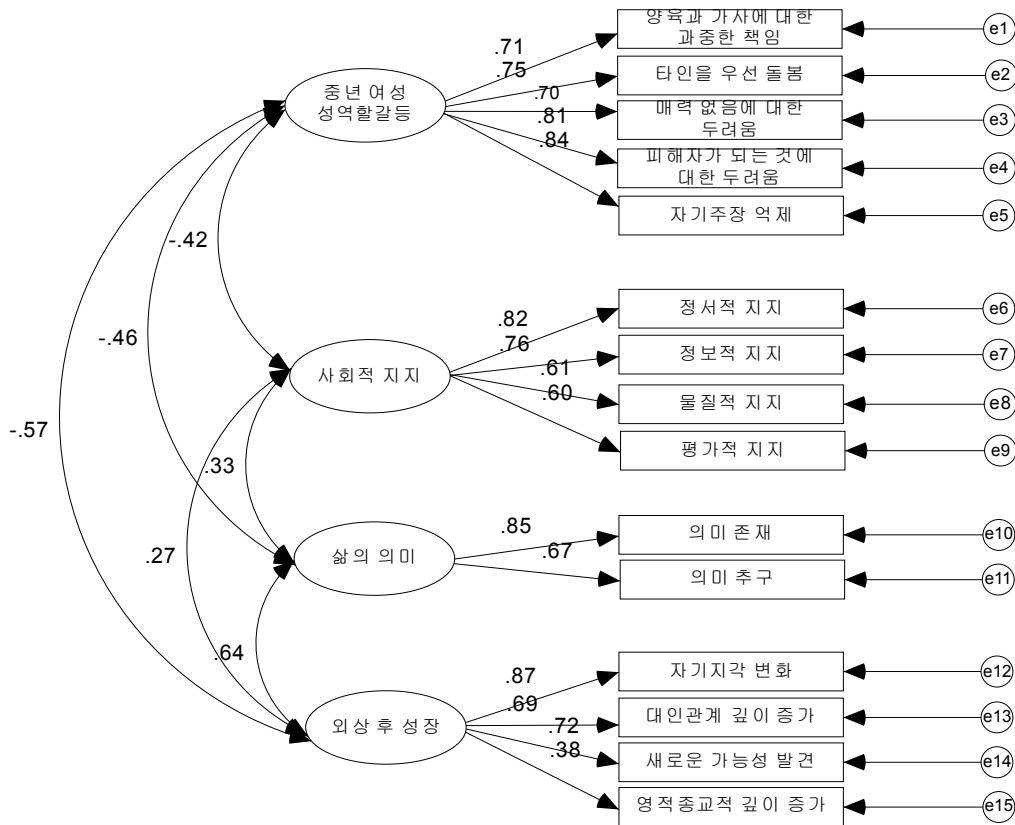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아보기 이전에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결과,  $\chi^2(84, N = 241) = 210.759, p < .001, TLI = .906, CFI = .927, RMSEA = .073$  [90% CI = (.066 - .085)]의 값을 보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2에 제시한 대로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변인의 표준화 경로 계수는 .38에서 .87 사이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 그림 1에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이 직접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삶의 의미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역할갈등이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외상 후 성

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한다.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첫째,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림 3의 사회적 지지 → 외상 후 성장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유도가 더 높은 좀 더 간명한 모형으로 최종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최종모형의 적합도가  $\chi^2(85, N = 241) = 211.471, p < .001, TLI = .908, CFI = .930, RMSEA = .070$  [90% CI = (.063 - .084)]의 값을 보여, 최종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유사하였고, 연구모형은 최종모형에 내재되므로  $\chi^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의 차이는  $\chi^2_{Difference}(1, N = 241) = .712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와 경로계수는 그림 4와 같고, 최종모형에서의 직접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성역할갈등과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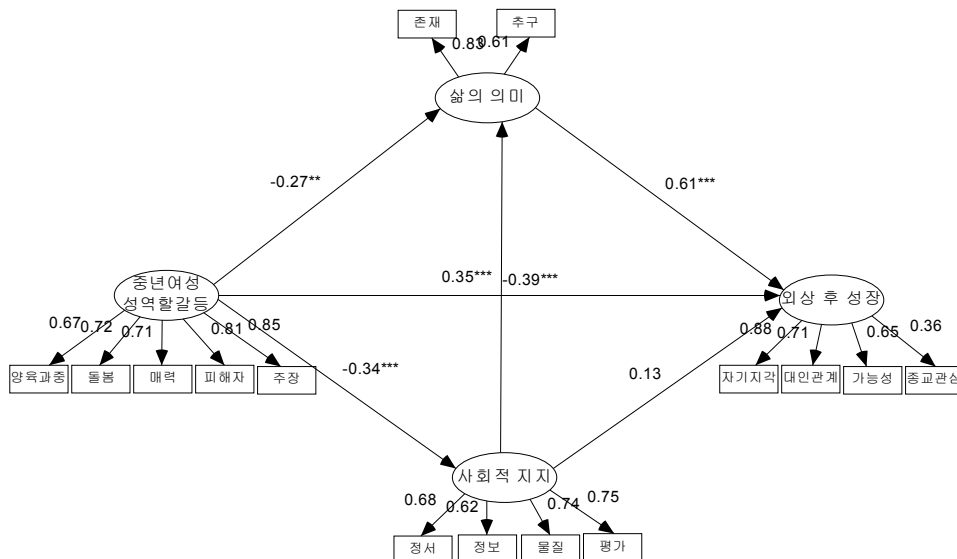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표 2.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비교

모형	$\chi^2$	df	모형비교	$\Delta\chi^2(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210.759	84			.906	.927	.073(.066 - .085)
최종모형	211.471	85	1 vs 2	.712(1)	.908	.930	.070(.063 -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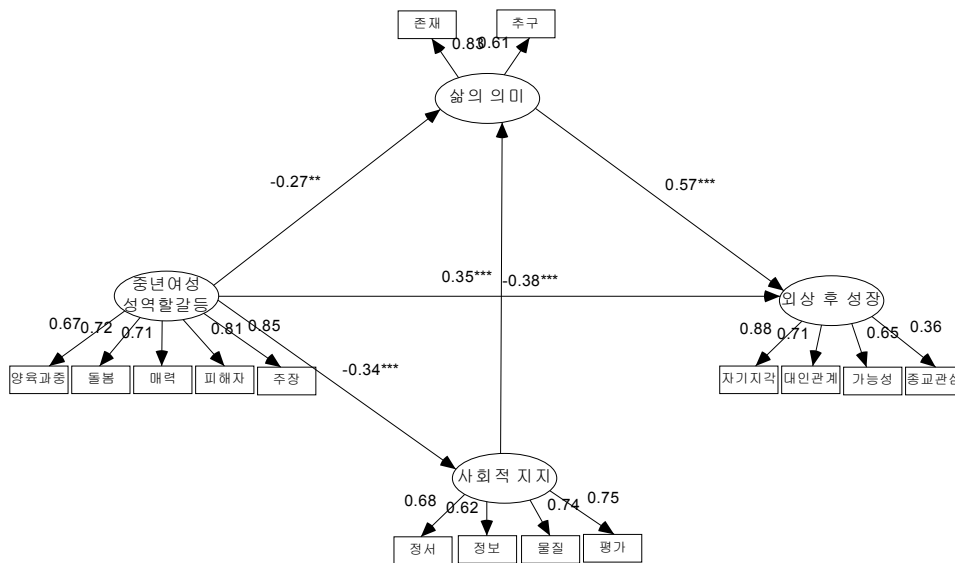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 $p < .01$ , \*\*\* $p < .001$

표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경로	B	S. E.	$\beta$	t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 사회적 지지	-.235	.026	-.344	-4.385***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 삶의 의미	-.163	.028	-.267	-5.111***
사회적 지지 → 삶의 의미	.247	.042	.351	3.717***
삶의 의미 → 외상 후 성장	.353	.055	.567	6.231***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 외상 후 성장	-.198	.025	-.384	-3.914***

주. \*\*\* $p < .001$

( $\beta = -.344, p < .001$ ), 삶의 의미( $\beta = -.267, p < .001$ ), 외상 후 성장( $\beta = -.384, p < .001$ ) 의 경로계수가 부적으로 유의하여, 성역할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삶의 의미( $\beta = .567, p < .001$ )의 경로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 간 정적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51, p < .001$ ).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였고,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매개하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모형에서 변수들의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성역할갈등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121, p < .01$ )와 성역할갈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219, p < .001$ )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199, p < .01$ )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

표 4. 최종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95% 신뢰구간)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 사회적 지지	-.344***	-	-	-.344***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 삶의 의미	-.267***	-.121**	-	-.388***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 외상 후 성장	-.384***	-.219***	-	-.603***
사회적 지지 → 삶의 의미	.351***	-	-	.351***
사회적 지지 → 외상 후 성장	-	.199**	-	.199**
삶의 의미 → 외상 후 성장	.567***	-	-	.567***

주. \*\*  $p < .01$ , \*\*\*  $p < .001$

표 5.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 삶의 의미 → 외상 후 성장	-.054***	-.106	-.021
중년여성 성역할갈등 → 사회적 지지 → 삶의 의미 → 외상 후 성장	-.075***	-.041	-.122

주. \*\*\*  $p < .001$ . 위의 수치는 비표준화 수치임.

났다. 한편, 개별적인 간접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팬텀 변인을 설정한 뒤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고( $B = -.054, p < .001$ ),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B = -.075, p < .001$ ).

## 논 의

이 연구는 중년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역할갈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변인들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은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역할갈등이 부정적 심리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고 긍정적 심리변인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김지현, 최희철, 2007; Pleck, 1981), 중년여성이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에 초점을 둘수록 역할 스트레스가 높고 삶의 의미와 같은 긍정적 심리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여성 한부모의 심리적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전경숙, 2010; Cohen & Savaya, 2003; Kaufman, 2000; Matud, 2004).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갈등이란 결국 부당한 당위에 대한 사회부과적 내면화의 결과(Gillespie & Eisler, 1992)이고, 자신에게 기대되

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특히 자신이 내면화한 성역할과 어긋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리적 고통이 클 수 있기 때문에(이진희, 배은경, 2013; O'Neil, 2008), 성역할갈등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상 후 성장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결과 확인된 최종모형에서 성역할갈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의미가 그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은 외상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삶의 의미를 거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를 거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성역할갈등이 적은 중년여성 한부모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가 활성화되어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 확인된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삶의 의미의 매개 역할은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보라, 신희천, 2010; 신선영, 정남운, 2012; Janoff-Bulman, 2004; Park & Folkman, 1997). 이는 삶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는 외상 후 성장에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외상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성장을 높일 수 있음(정주리, 이기학, 2007; Davis & Morgan, 2008; Park & Ai, 2006)을 의미한다. 또한,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역경에 대처하는 것이므로 삶의 의미는 개인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성장-관련(growth-related)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

데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사건이 주는 부정적인 결과에 위축된 내담자에게 외상 후 성장 모형에 초점을 두고 그 사건이 주는 의미나 목적에 대해 내담자가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이를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과 관련짓도록 상담자가 돕는다면, 부정적 경험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삶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 매개변인들의 매개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아 삭제된 최종모형을 통해,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삶의 의미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의미는 외상 후 성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의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권해수, 2011; 이수림, 2013)와 일치한다. 하지만 외상을 경험한 경우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적응력이 향상된다(Peterson, Folkman, & Bakeman, 1996)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Park, Cohen, & Murch, 1996)는 선행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부분매개의 경로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연결성이 주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연결성이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촉매 역할로써 중요함을 시사한다. 상담은 개인의 변화 과정과 변화 기제에 관심을 갖는 영역으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의미를 통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관계중심적인 변인인 사회적 지지의 탐색과 확충을 돕는 적절한 상담전략이 필요함을 뜻한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비교적 높게 지각하고 외상 후 성장 경험을

매우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자들이 한부모 자조모임과 한부모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삶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에 참석하거나 적극적인 한부모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연구대상과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이기도 하지만,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중년여성 한부모를 상담할 때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는 중년여성 한부모가 자신의 삶에 미친 성역할갈등과 외상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경험에서 재발견되는 의미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상담자는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가 내면화한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갈등에 대한 탐색과 한부모됨의 경험이 주는 의미 등을 포함해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내면의 힘을 강화하도록 조력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외상 경험과 관련된 정서적 고통의 표출과 성장 지향적 상담과정에서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상담자의 노력이 내담자에게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경험이 되어, 외상 후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한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줄이고 한부모, 여성 한부모, 한부모 가족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펼쳐지는 데 작은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생의 초기에 형성되어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갈등의 견고함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년여성 한부모에게 있어서 성역할갈등이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접근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년여성 한부모를 상



담할 때 내면화한 성역할 특성을 탐색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전 생애에 걸친 성역할 내면화는 상당히 견고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본다면, 중년여성 한부모가 역할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내면화한 성역할과 관련된 평등한 관계성을 확장하고 역할 기대와 관련된 초점을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상담 개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이 긍정 심리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중년여성 한부모의 적응 과정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중년여성 한부모의 사회화된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긍정성 발견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중재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에 대한 것이다. 40세 이후에 사별 또는 이혼한 뒤 경과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재혼하지 않은 40대-50대 중년여성 한부모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중년여성 한부모의 긍정성 발견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부모 자조모임이 있는 단체의 이용자나 비교적 개방적인 친목모임을 소개 받아 자료를 구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할 때 한부모가 된 사유에 따라 사별 또는 이혼으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한데, 상실과 이별이라

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별과 이혼은 배우자 상실에 대한 애도를 다루는 방식을 포함해 한부모됨의 경험은 서로 다를 것이다. 또한 같은 중년기라고 해도 40대 초반과 50대 후반의 발달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한부모가 된 사유를 구분하고, 40대와 50대 연령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배경들 가운데 결혼 기간과 한부모 기간,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등을 고려하여 중년여성 한부모를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 특성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설문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 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를 표집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족 안의 자녀가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경험에 대한 연구도 제안한다. 셋째,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중년여성 한부모에 대한 종단적인 자료수집으로 외상 후 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그것이 어떻게 성역할 내면화 과정의 내용들과 관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도 중년여성 한부모의 긍정성 발견의 확장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년남성 한부모의 성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역할 내면화 과정은 불평등한 권력 균형을 전제로 한 사회적 압력의 경험이다. 그러므로 중년남성 한부모의 성

역할 내면화와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이해는 남성 성역할과 여성 성역할의 경계와 재구성에 대한 담론의 시도가 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강희영 (2005). 배우자 사별 중년 여성을 위한 사별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선영 (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변화 정도, 대처 전략, 적응 및 복지 요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배희 (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혜수 (2011). 성폭력상당자의 대리외상 관련 변인 연구: 상담유형, 외상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415-430.
- 김경순 (2010).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 이희경 (2011). 긍정정서와 자기결정성 요인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4), 1353-1370.
- 김미숙, 원영희 (2006). 저소득층 한부모의 자아통제감이 주관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71, 75-105.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심, 곽지영 (2010). 빈곤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거주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1(1), 161-179.
- 김지현 (2008). 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4), 1-22.
- 김지현 (2009).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과 진로결정 간 관계에서의 의사결정의존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0(3), 239-256.
-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김지혜 (2008). 중년기 이혼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연구-중년기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행섭, 김진숙 (2008). 양육 스트레스가 여성 한부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전략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67-1584.
- 김혜선, 김은하 (2010).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삶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

- 들. 한국위기관리논집, 6(1), 219-242.
-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 노영주 (2001). 이혼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43-63.
- 박주연, 김경신 (2012).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3-46.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 교육심리연구, 26(3), 787-816.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송 욱 (2013). 40대 이혼 여성의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목회와 상담, 20, 30-60.
- 송주연, 이희경 (2010). 소아암 환자 어머니의 희망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11(4), 1501-1517.
- 신선영, 정남운 (2012).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인간이해, 33(2), 217-235.
- 양복순 (2002). 중년여성의 배우자사별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www.mogef.go.kr에서 2013, 3, 8 자료 얻음.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이경희 (2006). 이혼 후 한부모의 적응관련 요인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부영 (2002). 자기와 자기실현. 서울: 한길사.
- 이수림 (2013). 외상 유형이 외상 후 성장 및 지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19-341.
-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이진희, 배은경 (2013). 완벽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enough mother)로: 위니콧의 유아정서발달이론과 어머니노릇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3(2), 35-75.
- 장재정 (1998).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숙 (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 간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주리, 이기학 (2007). 의미발견을 통한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모형 검증: 문제해결 책임감과 긍정적 재해석을 매개로. 상담학연구, 8(4), 1309-1321.

- 주혜주 (2012). 여성은 어떻게 이혼을 결정하는가. *과주: 한국학술정보*.
- 최은화, 이윤화 (2010). 이혼 후 여성의 자기인식 변화 과정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8, 119-149.
- 하정혜, 김지현 (2012). 한국 중년여성 성역할 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3(6), 2987-3007.
- 한경혜 (1993). 이혼 후 재혼 가족의 적응. *인간발달연구*, 5(1), 234-267.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엮음 (2001). *새로 짓는 우리집*. 서울: 학민사.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인영, 홍선희 (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77-49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ffleck, G., & Tennen, H. (1996). Construing Benefits from Adversity: Adaptational Significance and Dispositional Underpinnings. *Journal of personality*, 64(4), 899-92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Astin, M. C., Lawrence, K. J., & Foy, D. W.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battered women: risk and resilience factors. *Violence and victims*, 18(1), 17-28.
- Bellizzi, K. M., & Blank, T. O. (2006). Predicting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survivors. *Health Psychology*, 25(1), 47-56.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oals, A., & Schuettler, D. (2009). PTSD symptoms in response to traumatic and non-traumatic events: The role of respondent perception and A2 criter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4), 458-462.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56-89.
- Cohen, O., & Savaya, R. (2003). Adjustment to divorce: A preliminary study among Muslim Arab citizens of Israel. *Family process*, 42, 269-290.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avis, C. G., & Morgan, M. S. (2008). Finding meaning, perceiving growth, and acceptance of tinnitus. *Rehabilitation Psychology*, 53(2), 128.
- Efthim, P. W., Kenny, M. E., & Mahalik, J. R. (2001). Gender role stress in relation to shame, guilt, and extern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430-438.
- Erdwins, C. J., Buffardi, L. C., Casper, W. J., & O'Brien, A. S. (2001). The relationship of women's role strain to social support, rol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Family relations*, 50(3), 230-238.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orste, R., & Heaton, T. B. (2004). The divorce generation: Well-being, family attitudes, and

-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1, 95-114.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Pocket Books.
- Frazier, P. A., Tix, A. P., & Barron, K. E.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rrection to Frazier et al.*
- Gillespie, B. L., & Eisler, R. M. (1992). Development of the feminine gender role stress scale A cognitive-behavioral measure of stress, appraisal, and coping for women. *Behavior Modification*, 16(3), 426-438.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uttman, H. A. (1991). Parental death as a precipitant of marital conflict in middle ag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7(1), 81-87.
- Helgeson, V. S. (2002). *The psychology of gender*. NJ: Prentice Hall.
- Helgeson, V. S., & Fritz, H. L. (1998). A Theory of Unmitigated Commun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3), 173-183.
- Helson, R., Stewart, A. J., & Ostrove, J. (1995). Identity in three cohorts of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3), 544.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
- Hicks, J. A., & King, L. A. (2009). Positive mood and social relatedness as information about meaning in lif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471-482.
- Janoff-Bulman, R. (2004). Posttraumatic growth: Three explanatory models. *Psychological Inquiry*, 15(1), 30-34.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Kalmijn, M., & Monden, C. W. (2006). Are the Negative Effects of Divorce on Well-Being Dependent on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5), 1197-1213.
- Kaufman, G. (2000). Do gender role attitudes matter? Family formation and dissolution among traditional and egalitarian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21(1), 128-144.
- Kilmartin, C. T. (2009). 우리 안의 남성[*The masculine self* (3rd ed.)]. (김지현, 김현순, 조중신, 최희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에 출판).
- Levinson, D. J. (1996).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ew York: Knopf.
- Linel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Maslow, A. (1979). Humanistic Education.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3), 13-25.
- Matud, M. P. (2004).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401-1415.
- Mearcker, A., & Langner, R. (2001). Posttraumatic personal growth: Validation of German version of 2 questionnaires. *Diagnostica (German)*, 47, 153-262.

- O'Neil, J. M.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 Park, C. L. (2010). Making sense of the meaning literature: an integrative review of meaning making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36*(2), 257-301.
- Park, C. L., & Ai, A. L. (2006). Meaning making and growth: New directions for research on survivors of trauma.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5), 389-407.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15-144.
- Park, C. L., & Helgeson, V. S. (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791.
- Peterson, J. L., Folkman, S., & Bakeman, R. (1996). Stress, coping, HIV status, psychosocial resources, and depressive mood in African American gay, bisexual, and heterosexual 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461-487.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MA: MIT Press.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R.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ew York: Basic Books.
- Rook, K. S., & Ituarte, P. H. (1999). Social control, social support, and companionship in older adults' family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Personal Relationships, 6*(2), 199-211.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harpe, M. J., Heppner, P. P., & Dixon, W. A. (1995). Gender role conflict, instrumentality, expressiveness, and well-being in adult men. *Sex Roles, 33*(1-2), 1-1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pruijt, E., & Duindam, V. (2005). Problem behavior of boys and young men after parental divorce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3*(3-4), 141-155.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 Taylor, S. 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61-1173.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hornton, A. A., & Perez, M.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prostate cancer survivors and their partners. *Psycho-Oncology*, 15(4), 285-296.
- Wang, H., & Amato, P. R. (2000). Predictors of divorce adjustment: Stressors, resources and defin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55-669.
- Weathers, F. W., & Keane, T. M. (2007). The Criterion A problem revisited: Controversies and challenges in defining and measuring psychologic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2), 107-121.
- Weiss, T. (2004). Correlates of posttraumatic growth in husbands of breast cancer survivors. *Psycho-Oncology*, 13(4), 260-26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 Wester, S. R., Christianson, H. F., Vogel, D. L., & Wei, M. (2007).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social support.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8(4), 215.
- Yalom, I. D. (1982). The terrestrial meanings of life. In International Forum for Logotherapy. *Viktor Frankl Inst of Logotherapy*, 5(2), 92-102.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626-653.
- 원 고 접 수 일 : 2016. 02. 02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7. 18  
게재결정일 : 2016. 08. 29

##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of Life in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Posttraumatic Growth of Middle-aged Female Single Parents

Ha, Jung-Hye

Kim, Ji-Hyeon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social support and meaning of lif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posttraumatic growth in middle-aged female single parents. For the structural model analysis, data collected from 241 female, single parents (classified by marital status) in their 40s-50s was used.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or model verification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to examine whether social support and meaning of life had mediating roles in the gender role conflict and posttraumatic growth relation.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are as follows. First, gender role conflict had a direct impact on posttraumatic growth and an indirect impact on posttraumatic growth with meaning of life as a parameter. Seco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of life we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posttraumatic grow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suggested.

*Key words* : middle-aged female single parent, gender role conflict, posttraumatic growth, social support, meaning of life